

◆ 기획 ... 광역의회 선거의 허와 실

권력자들만의 손익계산서

I. 대중투쟁 잠재우는 맞불전략, 광역선거

강경대열사 타살을 계기로 그 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력과 대중적 지지도가 급속히 살아나는 가운데, 광역의회선거 일자가 6월20일 전후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투쟁국면에서 다가올 광역선거에 대해 우리민족민주진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지배권력 쪽에서 예정된 선거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수습불능의 국면에 이르는 현재의 대중투쟁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눈에는 눈 코에는 코'라는 식의 맞불전략의 일환으로 '광역선거'의 카드를 이용, 가위 짓질된 위기정국에서 벗어나고 향후 정국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석인 것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선거를 현실적으로 친여 유지들의 정연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관습화된 집권당의 프레임으로 가공할 자급력·조직력·관련 개입 등을 유호적절치 동원(?)하기가 어렵, 반민주적 바람대로 의석 몇개는 잃더라도 지난 기초의회선거와 같이 과반수 의석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그 좋은 머리(?)로 면밀히 계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판단은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이기라고 하고 또 별다른 최근의 곤혹스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수풀이가 없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제1야당' '선명야당'임을 자임하는 신민당 역시 광역선거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는 민자당을 능가한다. 신민당은 최근 불붙은 대중투쟁을 선거바람으로 바꿔 낼 수만 있다면 민자당의 끈경에서 비롯된 어부지리로서 그간 차기대권 확보에 있어 그야말로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었던 영남·충청·강원등에서도 대량득표에 고무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신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발판삼아 앞으로 연이어 예정돼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총선·대선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다고 본다.

II. 당리당락에 목매단 신민당

따라서 이런 신민당의 입장에서 최근 민족민주진영과의 연대

에 소극적이라 못해 부정적인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지역구 면밀하고 과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중산층 및 영남권의 거부감을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김대중씨에 대한 뿌리깊은 의혹을 한층 부채질 할 위험부담이 큰 정권타도투쟁에 동참하기 보다는, 최근의 반민주적 여론의 흐름을 타고 '온건대체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취약계층·지역 등에 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씨가 5

III. 투쟁과 선거참여 병행 결정한 민중당

민중당의 대응 역시 앞서의 당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의 투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들은 최근들어서는 공천자 대회 등 선거준비에 부산하고, 따라서 민족민주진영과의 연대 계층에 대해서는 시론등한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소수당의 표리표인 '헨디캡'을 얼마전까

정부수립을 위한 범국민대회의(이하 범대위)안에서도 최근 광역선거에 대해 여러 각도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 범대위의 5월말까지 논의는 광역선거에 임하는 좌우편향적 태도를 경계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다수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선거에 대해 행동으로 서까지 보이코트를 하는데 힘을 기울이지는 않지만, 이와함께 후보진술을 중심으로한 선거참여

조에서도 참여후보의 수를 줄이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국민연합 후보로 나서기로 한 일부인사도 출마 자체를 심각히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V. 선거혁명론적 편향 경계 필요

이런 전후 맥락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광역선거에 후보진술을 중심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사실상 이를 위해서만 개인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위들이다. 이들은 최근 투쟁에서 말로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지역구로 가 있다. 투쟁에 힘을 쏟기 보다는 돈을 장만하고 지역구민들과 악수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산 등 여러지역서 선거운병으로 인해 역량이 분산돼 투쟁으로의 총집결이 어려워졌던 점은 이를 단적으로 말한다.



◇...백골단 해체·국보법철폐·양심수 전원석방에 대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술과 결합할 때 대중투쟁이 살아올랐다"는 점을 내세웠다. 광역선거에 후보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대중투쟁을 활

제 바뀌었다. 이미 대중들은 선거가 아니더라도 '노획전'을 요구하며 시위대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의 주된 측면은 살아오르는 대중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교란책'이라는 데 있다. 또 이들의 후보진술이 대개는 '투쟁'보다는 '당선'에 사실상의 강조점이 가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는 곧 앞서의 편향, 즉 대중투쟁과는 동떨어진 선거혁명론적인 경향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VI. 모든 힘을 대중투쟁의 전장으로

여하튼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

한 것은 이번 선거가 민자당으로 대변되는 지배세력의 장기집권을 모에 일조하는 것을 막고, 투쟁의 모닥불을 계속 지펴내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노획전 퇴진요구를 중심으로 백골단 해체, 국보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모든 가능한 공간에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후보진술에 몰려있을 때가 아니라 불붙은 대중투쟁에 집중할 때다.

최 진 대
(민족민주연구소)

지배권력, 위기정국 극복·주도권 회복 위한 돌파구로 삼아

'선거혁명론'적 입장 탈피로 대중투쟁 역량 강화해 나갈 때

월 중순 뉴욕타임즈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글을 기고, 우리의 눈길을 보내는 미국에 대해 제발리 '알아서 기었단' 것 역시 이런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이들은 광역선거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 국민대회 일정이나 민족민주진영의 입장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집회를 여는데 주력하는 등 표발다지기에 열심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최근의 투쟁이 누가 보든지간에 노획전을 펼친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지거나, 투쟁에 소극적인 자세가 광역 및 차기 대권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직선제 등 선거를 통해 대권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당리당락을 버리지 않을 것이 다. 또 여기에는 김대중씨 특유의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과 맞서는 민족민주진영이 자기 아니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는 그 나름의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이같은 낙관적인 희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신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차기집권의 고무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들이 일반적이다. 민자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대개 그 '반 김대중'정향이라는 속성상 신민당으로 표류하기 되기 보다는, 결국은 민주당으로 가거나 기권표로 귀착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야성(野性) 부동표 역시 해묵은 지역감정으로 인해 신민당으로 가기보다는 기권표 등으로 낙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어느정도 보완했다고 보고, 여기서 얻은 '선명정당'의 이미지를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투표율 증가로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당들의 대응에 비해 민중당은 이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5월초 광역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투쟁으로 집중할 것을 결의했던 민중당의 최근 다수의 입장은, 일단 투쟁을 중심으로 민족민주진영과 결합하되 정당으로의 위치상 적극적으로 선거를 보이코트하거나 후보를 내지않는 것은 올바른지 않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후보의 수를 감량한 상태에서 투쟁과 선거를 병행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IV. 범대위, 대중투쟁 역량 집중 강조

앞서의 전후 맥락서 이번 광역선거의 의미는 보다 분명해 진다. 지자제가 갖는 고유성격대로 대중들의 정치적인 진출의 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지난 기초의회선거가 수서비리의 탈출구로 작용했듯이 대중투쟁을 잠재우려는 강경처방의 성격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자당으로 대변되는 지배권력은 이번 선거에서 '한자리수'의 지지율을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땀겨져 내는 마술(?)을 또다시 과시, 제1당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들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상승으로 왜곡해 내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

는 가능한 그 영역과 의미를 축소, 대중투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20여명 선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전교

여기서 다시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중심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은 선거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면'이고 '상황'이다. 이들은 얼마전까지 "선거에서는 후보진

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형 백보를 양보해 이 논리에 따르더라도 대중투쟁이 살아오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들의 주장과 실천은 바뀌어야 한다. 정세는 이



오 세 윤
(본보 취재부장)

I. 87년 6월 그 당시엔

87년 새해 벽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국민들은 어수선한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박군 고문치사건으로 정부와 민족민주운동진영에 줄타기가 거듭되다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 특별담화가 발표되면서 정부와 민족민주운동진영간의 대결은 본격화된다.

이와 더불어 6월9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6·10대회 출정식 이후 전경이 쓴 최후탄이 이한열군의 뇌리에 관통됨에 따라 정부와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다다른다.

전국 30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한 6·10대회는 7백60여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을 필두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민주화를 위한 1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으며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를 총망라한 국민운동본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9일까지 연이어 대규모집회가 소위 '백라이트부대'라고 불리는 중산층

"항쟁의미 되새기며 투쟁의 장으로 나가자"

의 대거 참여등으로 우리는 87년 당시 민중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음습치적적인 6·29선언으로 인해 6월항쟁이 드높았던 파고는 그 결실을 못 맺고 일정부분 개량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투쟁의 달 6월에 87년 당시 6월항쟁의 드높았던 민중의 힘을 떠올려 본다.

II. 6월항쟁의 의미

87년 6월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중운

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계속적인 공안통치로 그 당시의 조직력이 약화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이러한 대대적인 탄압에 얼마간 수세 국면을 보이다가 6월항쟁을 계기로 수세의 국면에서 공세의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이상에서 본것과 같이 87년 6월항쟁은 민중의 수세국면을 적극적인 공세의 국면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6월항쟁은 조

되면 87년 6월항쟁의 성과물들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념주년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87년 6월 민중들의 분출하는 욕구와 투쟁열기를 다시금 발현해내기 위한 학생들 나름대로의 움직임일 것이다.

현시기 91년 5월은 이상과 같은 사람들의 열망을 수용하기에 적당한 시기인 셈이다.

누구든지 5월의 강경대열사의 죽음과 학생들의 연이은 분신을 보면서 87년의 박종철열사와 이한열열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제도권은 그들 나름대로 정세를 분석하면서 87년 6월과 91년 5월은 분명히 다르다고 선전 해대지만 이는 이 전과는 달리 민중들이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정부의 대응태도만을 고려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현시기에 있어 87년의 6·29와 같은 내각개편에 속아서는 안된다. 내각개편은 바로 강경대열사를 죽인 정부에 대한 면죄부에 다름 아닌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드높았던 91년 5월의 합성과 87년 6월의 항쟁을 되뇌인다. 지금은 우리 모두 다시 다가오는 6월의 달에 6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투쟁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다시 돌아온 6월의 하늘

동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정부의 6·29선언으로 인하여 그 성과물과 파급효과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민중들의 거대한 힘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87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부친 상고문사건은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공안통치로 대변되는 5공화국 정부는 이후의 권력재편기에 대비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과 노동계

적화되어있지 못했던 각 부문별 계층조직을 공고히 하고 또한 조직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6월항쟁은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해서는 조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정부의 6·29선언으로 말미암아 대중에게 패배의식을 안겨준 결과를 낳기도 한 것이다.

III. 5월투쟁과 다가오는 6월

87년이후 대학가에서는 매년 6월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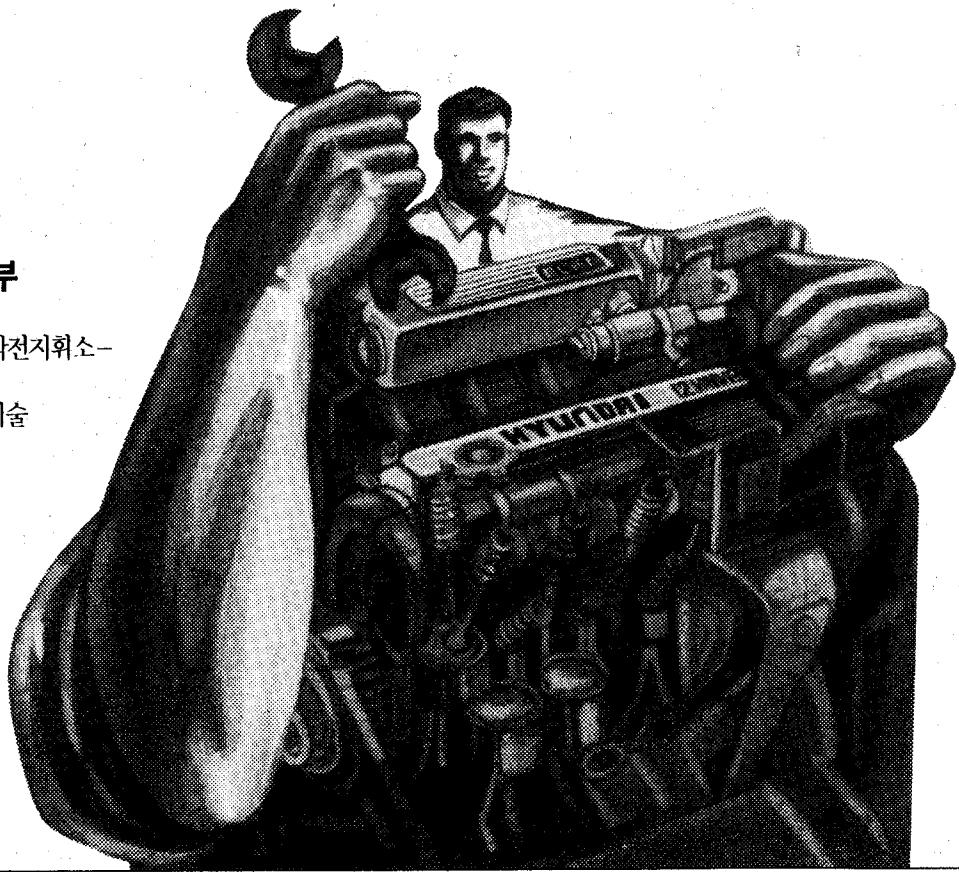
첨단 엔진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갑니다.

첨단 자동차 기술의 메카 -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자동차의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리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과 선진국의 핵심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단 기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수백번의 시험 과정을 겪으며 선진 자동차기술의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 바로 이들의 노력이 자동차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무대로 당당히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세계로, 미래로 - 첨단 기술의 벽을 넘는다

엔진시험부는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엔진 성능 시험 부문과 연소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배기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곳은 엔진 설계형상의 개선 방안 타점정 엔진과 성능 비교 테스트, 실차 탑재 전 최적성 비교 엔진의 최적화 및 내구성 강화 테스트 등 최종 사양 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업무를 총괄합니다. 때로는 샘플 엔진에, 때로는 선진기술의 벽에 부딪치며 하나 둘... 자동차 한국의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들 -

이들의 노력이 오늘을 사는 치열한 정신이자 내일의 첨단 자동차기술을 리드해갈 힘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 바로, 그대가 아닌가

인간 의식과 생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유행만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실패의 허물이 용납된다는 것 - 젊은 그대들만의 특권입니다. 세계 첨단 자동차 기술을 리드하며 지구촌 곳곳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펼쳐갈 내일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젊은 그대들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현대自動車